아시아리뷰 제3권 제1호(통권 5호), 2013: 11~29

한 · 일 양국의 역사를 다시 본다: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이 글은 최근에 출간된 나의 저서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와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에 대해 그 집필 배경과 주된 내용, 그리고 남겨진 과제를 다룬 것이다. 두 책의 주제는 전자는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며, 후자는 일본 역사학계의 일본사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두 책의 주제가 서로 무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관계를 가진 것임을 논했다. 한국사의 주류적 견해인 내재적 발전론과 일본 역사학계의 일본사 인식은 모두 서구의 역사 발전을 모델로 삼아 한국사와 일본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쌍둥이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러한 주류적 견해를 대신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역사 이해를 이들 책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주제어 동아시아사, 내재적 발전론, 소농사회론, 역사 갈등

I. 두 권의 책을 내면서

나는 최근에 두 권의 책을 공간했다.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너머북스, 2013. 1)와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창비, 2013. 3)가 그것이다. 이 두 권의 책은 제목만 보면 전자는 한국사를 다룬 것이며 후자는 일본의 역사인식을 다룬 것으로서, 전혀 다른 주제에 관한 책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권의 책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왜 두 개의 주제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두 권의 책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제13회 서울대학교 아시아포럼(2013. 4. 18)에서 발표한 초고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출발점: 두 권 책의 배후에 있는 문제의식

1. 연구자로서의 출발

나는 대학 학부시절부터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시대적으로도,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해 왔다. 먼저 지금까지 연구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나는 1967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2학년 때 이른바 대학분쟁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그 분쟁의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학생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가 등의 문제였다. 이런 와중에 학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의식했던 문제는 근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따라서 일본인의 한국 인식, 한국사 인식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던 1970년대 전반은 나중에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불리게 되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내재적 발전론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찍이 일본인 연구자가 주장했던 한국사의 타율성(他律性)과 정체성(停滯性)을 강조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 때까지의 한국사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에서 나온 전석담 · 허종호 · 홍희유의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사회과학출판사, 1970)과 김광진 · 정영술 · 손전후의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 후기 농촌경제의 변화를 추구한 김용섭의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농촌경제 · 사회변동』(일조각, 1970)과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농업변동 · 농학사상』(일조각, 1971), 조선 후기 상업의 발전을 추구한 강만길의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그리고 실학 사상의 문제를 선구적으로 밝힌 천관우의 『한국 실학 사상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책을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당시 류코쿠(龍谷)대

학에 계셨던 안병태(安秉珆) 교수[1]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선사연구회 관서(關西)부회의 동학들과 같이 읽었다.

나도 그러한 연구에서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학부 졸업 논문에서는 192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을, 그리고 석사 논문에서는 갑오개혁부터 1910년에 이르는 시기 농업 문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쓰게 되었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개항기의 농업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항 이전까지 올라가서 조선 후기의 농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박사 과정에 진학한 후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과 토지 제도의 문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일제시기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료를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의문

이 시기는 기본적으로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한편으로는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의문도 점점 싹트기 시작했다. 그 의문이란 내재적 발전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 후기에 근대의 맹아로 볼 수 있는 변화들이 존재했었다면 개항 이후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연구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항기 이후 일본의 침략,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식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그리는 것도 무언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이를테면 일본 근대사의 그림자로서 한국 근대사를 보려고 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근대 일본의 역사를 반성적, 비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닌 일본 시민들에게 한국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문이 차차 커지는 가운데 내 연구 생활에서 첫 번째 큰 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개화파 사람들의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었다. 1984년은

1 나의 스승 중의 한 분이신 안병태 교수는 일찍 돌아가셨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朝鮮近代經濟史研究(조선근대경제사연구)』(日本評論社, 1975)와 유고를 모은 『朝鮮社會の構造と日本帝國主義(조선사회의 구조와 일본제국주의)』(龍溪書舍, 1977)가 있다. 전자의 전체와 후자의 일부가 『한국근대경제와 일본제국주의』(백산서당, 1982)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바 있다.

갑신정변 100주년에 해당하는 해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사 연구단체인 조선사연구회의 연차대회에서 '갑신정변 100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1981년부터 도쿄도립(東京都立)대학에 근무하던 나도 발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립대 대학원의 강의에서 개화파와 갑신정변 관련의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그 당시 도립대의 대학원생이던 조경달[趙景達, 현 지바(千葉)대학 교수] 씨도 발표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발표 준비를 겸해서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개화파의 김옥균이나 박영효, 김윤식 등의 문장을 읽으면서 종래의 개화파 연구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개화파, 특히 갑신정변을 주도한 이른바 급진 개화파로 불리는 김옥균이나 박영효는 일본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이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영향도 받으면서 개화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후원에 의지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문장을 보면 유학적인 사상의 깊은 흔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후쿠자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로는 이러한 유학 사상의 흔적은 그들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유학 사상이라는 것은 근대화를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낡은 사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유학 사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유학 사상의 영향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개화파보다 후쿠자와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등의 의문이 차차 떠올랐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학 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는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한 조선시대의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근대 이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등을 밝혀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유학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후쿠자와를 근대 계몽의 기수로 높이 평가해 온 일본사 이해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었다.[2]

[2] 그 당시의 성과로서는 宮嶋博史, "開化派研究の今日的意味(개화파연구의 현재적 의미)"(『季刊三千里』 40號, 1984)와 "朝鮮社會と儒教(조선사회와 유교)"(『思想』 750號, 1986)가 있다.

3. 양안과의 만남

개화파에 대한 위와 같은 재검토가 나의 연구생활의 첫 번째 전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기가 된 것은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대한 연구였다. 일제시대의 토지조사사업 연구를 장기적인 과제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1987년에 7개월간 처음으로 한국에 체재하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방대한 양안 자료와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일견하면 단순한 숫자의 나열 같이 보이는 양안이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양안 하나하나가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양안의 다양성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토지 파악 방식의 시대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완성하게 된 것이 나의 첫 번째 저서인『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1991,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양안을 연구하면서 나에게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양안에 반영된 조선시대 토지 소유의 독특한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양안에는 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소유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양반, 향리(鄕吏), 양인(良人), 노비, 승려(僧侶) 등 신분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양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양반은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으로서 존재했는데, 그러한 양반도 양안에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도쿠가와(德川) 시대 일본에서도 양안과 비슷한 양식을 가진 검지장(檢地帳)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거기서 무사들은 토지 소유자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사들은 토지를 지배하는 존재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농민과 신분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서구의 귀족이나 교회는 토지의 지배자로서 토지대장을 작성

하는 주체였지, 스스로 각 토지의 소유자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이나 서구의 경우와 비교하면 양반은 지배계층이면서도 다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양안에 관한 연구는 저명한 김용섭 교수의 연구[3]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현상에 주목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양반이란 무엇인가, 양반을 지배계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양반을 지배계층으로 한 조선시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다고 볼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게 되었다.

그리고 양안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된 것은 양안과 일본의 검지장, 더 나아가서 같은 시기 중국에서 작성되던 어린도책(魚鱗圖冊)이라는 토지대장의 유사성에 대해서였다. 이들 토지대장은 서로 영향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일률적으로 파악한 결과 만들어졌던 것으로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러한 유사성이 생긴 것인가의 문제였다.[4] 이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의 '공통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전기에서 제기된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였다는 의미에서, 두 문제는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연구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렇다면 내재적 발전론을 대신할 수 있는 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시각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인 연구자가 주장하던 한국사관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된 시각이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본의 연구자가 일본사를 바라보는 입장과 사실은 같은 것이었다. 즉, 일본의 일본사 연구자들은 서구적인 모델을 일본사에 적용하면서, 일본의 역사가 서구와 비슷한 발전을 해왔다고 주장했는데, 내재적 발전론 역시 한국의 역사를 서구 모델을 한국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의미에서는 대동소이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

3 김용섭 교수의 양안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소개한 두 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4 세 개 장부의 양식을 비교한 논문이 첫 번째 책인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에 수록된 "사대부와 양반은 왜 토지귀족이 아닌가"이다.

재적 발전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한국사 이해를 모색한다는 과제는 동시에 일본사에 대한 일본의 통설적인 이해를 비판하는 측면을 함의한 것이었다.

이상이 올해 초에 출판된 두 권의 책에 담겨져 있는 문제의식의 배후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두 권의 책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III.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1. 서구 모델에 의거한 한국사 연구 비판

내재적 발전론은 일제시기에 일본인 연구자들이 주장하던 한국사 이해를 비판하기 위해 제기된 주장이었다. 즉, '타율성'에 대해 '내재'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 '발전'을 대치함으로써 한국사를 이해하려는 주장이었다. 이 새로운 한국사 이해는 일본인 연구자의 한국사 이해를 비판하는 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낳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었다고 여겨진다. 하나는 '내재'를 강조한 나머지 외부와의 관계가 경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사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발전'의 모델로서 서구 모델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문제부터 말하겠다.

서구 모델을 한국사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문제는 '봉건제'에 관한 문제다. '봉건제'란 서구 중세사회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러한 서구적인 '봉건제'가 한국에서도 존재했었을 뿐만 아니라 18, 19세기에 '봉건제'가 해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내재적 발전론'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실 전전(戰前) 일본인 연구자가 주장했던 '봉건제 부재론', 즉 한국의 역사에는 '봉건제'의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근대화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한국사회를 '봉건제'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양안의 문제가 그렇다. 양안에서 양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지 소유자로 등장하는 현상은 '봉건제'론에서는 제

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서구 '봉건제' 사회에서는 영주나 교회는 토지의 지배자로서, 어떤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존재로서 개별 토지의 소유자로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 양반은 개별 토지의 소유자로 존재할 뿐, 영역적인 지배자는 전혀 아니었다. 물론 양반은 많은 경우 일반사람보다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주로서 토지를 소유했던 것일 뿐, 일정한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영주로서 존재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사대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즉, 중국의 사대부들도 어린도책에 일반사람들과 나란히 토지 소유자로 등장하지만 영역적 지배자로서의 성격은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양반과 사대부의 존재 형태를 '봉건제'론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2. 소농사회론의 제기

그러면 양반과 사대부의 위와 같은 특색은 어떻게 생긴 것이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기한 가설이 '소농(小農)사회론'이다. '소농사회론'은 일본도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인데, 그 의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건제'로 대표되는 것 같은 서구 모델로 동아시아 사회를 보려고 하는 입장을 극복하는 데 있다. 즉, 서구 모델로부터 일단 떠나서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최대 특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주목해서 그것을 개념화한 것이 '소농사회론'이다.

'소농사회론'의 내용은 첫 번째 책인『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핵심은 16세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집약적인 벼농사가 일반화되는 가운데, 그것이 단순히 농업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구조와 국가구조까지도 크게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즉, 집약적 벼농사가 확립되는 가운데 소농민이 생산주체로서 성장한 결과, 사대부, 양반, 무사 등의 지배계층이 농업 생산에서 손을 떼며 토지귀족으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소농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주자학이 국가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고 주자학으로 무장한 관료들에 의한 통치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소농사회론'의 골

격이다. '소농사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집약적 벼농사의 확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먼 옛날부터 건조 지대에서는 밭농사, 그리고 습윤(濕潤) 지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져 왔다. 주지하듯이 중국 대륙의 황하문명은 건조 지대의 관개 밭농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다. 이러한 밭농사와 벼농사의 비중이 바뀐 것은, 중국 대륙에서는 송나라 시대 이후이고,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규모에서는 16세기 이후다.

동아시아 농업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변화한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산간의 좁은 평야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이식식(移植式) 집약적 벼농사(모내기를 행하는 벼농사)가 대하천의 하류 평야지역에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국대륙에서 이런 변화는 송나라 시대에 시작되어 명나라 시대인 16세기에 이르러 장강(長江, 양자강) 델타 지역의 치수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확립되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는 16~18세기에 기본적으로 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집약적 벼농사의 획기적 확대가 당시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의 토지생산성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 몽골제국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어 16세기에 비약적으로 확장된 세계시장 형성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부유함을 동경하면서 기동한 것이었는데, 중국의 부의 원천은 집약적 벼농사의 성립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농업에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소농사회'는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부터,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 대체로 16세기쯤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즉, 일본에서도 집약적인 벼농사가 보급, 일반화되었다는 면에서는 중국, 한국과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응하는 국가구조 면에서는 다른 형태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주자학이 국가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었으며 과거제도도 도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지식인이 아닌 무사가 통치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는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세습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소농사회론'은 한편에서는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임과 동시에 그 중에서 일본의 특이함을 파악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3. 소농사회론의 심화

나는 이러한 함의를 가진 '소농사회론'을 1994년에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후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작업은 주로 2002년 한국에 오게 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책에는 '소농사회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논문을 비롯해 그 이후의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소농사회론'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양반의 문제이다. 내재적 발전론에서는 양반을 '봉건적'인 신분제를 바탕으로 존재하던 조선시대 지배계층으로 이해했는데, 이러한 이해를 비판하기 위해 양반과 토지와의 관계, 조선시대 신분제의 특색, 양반의 재생산구조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한국사회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과 친족제도,[5] 사회적 결합의 문제도 고찰했는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 일본과의 비교가 유효하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했다.

역사인구학이라는 학문은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데, 첫 번째 책에 수록된 역사인구학에 관한 논고는 초보적인 것이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역사인구학이란 근대에 들어 국세조사 같은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대를 대상으로 인구 변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국은 조선시대의 호적대장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족보도 왕성하게 편찬되었기 때문에 역사인구학의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구가 부진한 상태였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동아시아의 각 사회는 서구와 비교하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에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조절의 문제와 '소농사회론'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앞으로의 연구

5 한국의 가족, 친족제도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 좋은 자료는 족보다. 한국의 족보에 대해서는 "『안동권씨 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대동문화연구』 62호, 2008)과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대동문화연구』 77호, 2012) 등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지만, 이 책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족보에 관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단행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동아시아 각국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거나(일본) 가까운 시기에 감소하기 시작하리라 예상되는(한국과 중국) 상황에서 과거의 인구 조절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농사회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경과했다. 일본 학계에서는 한국사 이외의 분야에서도 '소농사회론'이 어느 정도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한국의 학계에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여전히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의 책 간행을 계기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소농사회론'의 또 하나의 함의는 그것이 단순히 전통시대 동아시아 사회를 파악하기 위한 틀로서만 제기된 가설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유효하다는 점에 있다. 전통과 근대를 단절적으로 보지 않고 그 연속적인 부분을 주목하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근대 이행기에 관한 논문도 첫 번째 책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소농사회론'이라는 입장에서 동아시아 내부의 비교라는 방법을 동원해 조선시대 이후의 한국사를 보려고 한 것이 첫 번째 책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다.

IV. 일본의 일본사 인식 비판

1. 왜 일본사 인식을 문제로 삼는가?

한국사를 연구해 온 내가 일본사 인식의 문제까지 발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국사에 대한 연구와 일본의 일본사 인식을 비판하는 작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왜 그러한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나로서는 일본의 한국사 인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사 인식을 문제 삼아 연구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일본의 한국사 인식과 일본사 인식이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사의 특색 등을 논의할 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일본사의 특색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의 '타율성'을 이야기할 때 그 배후에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율'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한국사의 '정체'를 말할 때 그와 대비되는 일본의 '발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에게 있어서 외국으로 제일 먼저 의식되는 존재가 한반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도 여겨진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의 한국사 인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내재적 발전론은 일본의 식민 사관을 비판해서 새로운 한국사상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일본사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바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도 한국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등에는 가마쿠라(鎌倉)시대 이후의 일본을 '봉건제' 사회로 보는 일본 역사학계의 통설적인 이해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한국사 인식과 일본사 인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사 인식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인식만이 아니라 일본사 인식도 함께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를 연구해 온 내가 일본의 일본사 인식을 비판한 두 번째 책을 출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탈아입구(脫亞入歐)'적인 일본사 인식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만드는 일이 요구되었다. '국사(國史) = 일본사'라는 도식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때 만들어진 '국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탈아입구'를 위한 일본사 이해였다. 그 핵심은 일본의 역사를 서구와 비슷한 경과를 겪어온 것으로 그림으로써 한국, 중국의 역사와의 차이를 강조하는 점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상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봉건제'론이었다. 일본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봉건제'를 경험한 데 비해 한국과 중국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본 '봉건제'론의 내용이다. 이러한 일본 '봉건제'론은 단순한 학문적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도 했다. 즉, 서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일본은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봉건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과 중국은 자력으로 근대화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외부의 힘으로 근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 '봉건제' 론의 정치적 함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봉건제'론은 노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세계열강의 일각을 차지하게 된 시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학문적인 연구 결과로 나온 주장이라기보다 그 당시 현실을 설명해 주는 담론이었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봉건제'론은 일본사의 통설적인 이해로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연구자가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봉건제'론은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는 '탈아입구'적인 일본사 인식의 선구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 담론이었다. 두 번째 책인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에서는 일본 '봉건제'론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통설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찰한 논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문제

일본에서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이 생기게 되는 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유학에 대한 인식이었다. 유학의 영향력이 중국이나 한국보다 약했고 과거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서구의 충격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저항이 훨씬 약했다. 유학은 근대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빨리 버려야 하는 사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으며, 유학이 지배하는 중국과 한국을 후진적인 나라로 보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였는데, 그의 유명한 '탈아론(脫亞論, 일본은 주변의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서구 각국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유학에 대한 일본의 위와 같은 인식은 지금도 강하며 연구자 사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후 일본의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마루야마 마시오(丸山眞男)다. 그는 주자학을 서구 중세의 가톨릭교와 비슷한 보수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상으로 보면서 도쿠가와시대 일본에서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 일찍부터 등장했다고 해서 그 지점에서 일본 근대화

의 기원을 찾으려고 했다. 즉, 주자학은 근대화를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했는데, 그가 후쿠자와를 높이 평가했던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두 번째 책에서는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고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문제는 일본 학계에서만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 학계,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도 비슷한 인식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사 연구자 사이에서도 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학자들이 지배한 탓에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이른바 '유교망국론(儒教亡國論)'의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현상이 실학에 대한 높은 평가다. 즉 유학 사상을 비판해서 근대지향적인 사상의 출발점으로 실학이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실학 연구는 서구 모델을 사상사 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학 사상도 기본적으로 유학의 테두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유학의 테두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첫 번째 책에서 내나름대로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4. 최근의 일본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일본에서는 또 다시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일본의 역사를 옹호하고 침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 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 등, 책임 있는 정치가들의 망언이 매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상황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를 만큼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3 · 11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생기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한 일본'을 재건하려고 하는 초조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두 번째 책에 수록된 논고 "일본 동아시아공동체론의 현주소"를 집필할 당시(2005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어느 정도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 중국에 대한 경계와 대항이라는 외교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의 관계도 전례 없이 나빠진 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호출되는데, '유신의 회'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메이지유신 이후의 근대 일본을 '강한 일본'의 표상으로 그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런 현황을 볼수록 두 번째 책에서 논한 일본의 역사 인식 비판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V. 남겨진 과제

두 권의 책 내용은 대체로 위와 같은 것이다. 물론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 실증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한 약점을 보충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지만, 여기서는 '소농사회론' 등 지금까지 나의 연구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기로 한다.

나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을 비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쩌면 최근 그 극복이 요청되고 있는 일국사(一國史)적인 역사 파악을 강화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점은 나도 나름대로 자각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소농사회'의 핵심을 이룬 집약적 벼농사가 전형적으로 전개된 지역은 중국의 강남(江南) 이남 지역, 한국의 남반부, 일본 서부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3국 내부에서도 이질적인 요소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국사적인 역사 파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큰 문제는 국제관계나 상호 접촉, 영향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바꿔 말하면 '소

농사회론'은 서구 모델을 일본에 적용한 '봉건제'론이나 해방 후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효한 비판이라고 자부하지만, '타율'과 '내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내재적 발전론은 '타율성론'을 비판, 극복하기 위해 '내재'를 강조했다. 하지만 타율과 자율, 종속과 독립이라는 문제가 과연 양자택일 식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일까? 역사적으로나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완전한 자율, 독립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는 국제화, 지구화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로서 대단히 절실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사의 경우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소재가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눈앞에 두고 종속과 자율 사이에서 고민해 온 한국에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노하우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노하우는 21세기 중국이 또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아주 귀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재적 발전론도 '소농사회론'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

타율과 자율의 문제도 그렇지만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연구는 그 특색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어떠한 보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인간관계 문제, 사회적 결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아시아의 집단주의라는 도식이 타당한 것인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 왔는지 등의 문제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주목하고 싶은 문제는 한국의 '계(契)'다. 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책에 수록된 사회적 결합에 관한 논고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거기서는 충분히 고찰할 수가 없었다. 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동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결사체(結社體)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태이지만, 나로서는 두 가지 성격을 겸비한 존재로서 계를 이해하고 싶다. 즉, 계는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때로는 공동체처럼 구성원들의 강한 결합을 요구하는 계가 존재하는 한편,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되는 느슨한 성격을 가진 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공동체 혹은 결사라

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다. 바꿔 말하면 계라는 조직은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라는 양자택일적인 명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계라는 조직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많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본적으로는 조직으로서의 유연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왜 이러한 계를 선호했는지, 그것이 한국의 사회적 결합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나 사회적 결합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할 만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은지 등의 문제에 대해 최근 고민을 하고 있다.

남겨진 과제가 너무나 많지만 앞으로도 연구의 진전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투고일: 2013년 4월 16일 | 심사일: 2013년 5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3일

참고문헌

김관진 · 정영술 · 손전후. 1973.『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달』. 평양: 사회과학출판 (이 책은 한국에서도 1988년에 도서출판 열사람에서 간행되었다).

강만길. 1974.『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용섭. 1970.『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농촌경제 · 사회변동』. 서울: 일조각.

_____. 1971.『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농업변동 · 농학사상』. 서울: 일조각.

미야지마 히로시. 2008. "『안동권씨 성화보』를 통해서 본 한국 족보의 구조적 특성".『대동문화연구』62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_____. 2012.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대동문화연구』77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_____. 2013.『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파주: 창비.

_____. 2013.『미야지마 히로사,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서울: 너머북스.

전석담 · 허종호 · 홍희유. 1970.『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천관우. 1970.『한국 실학 사상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宮嶋博史. 1984. “開化派研究の今日的意味”.『季刊三千里』40호.
_____. 1986. “朝鮮社會と儒教”.『思想』750호. 岩波書店.

Abstract

Recontextualizing the Histories of Korea and Japan in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History

Miyajima Hiroshi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paper, I discuss the writerly motives behind my two recent books, *Miyajima Hiroshi, My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and *Criticizing the Japanese Historical View*, recounting my main arguments and tackling unresolved issues in each. While the former was written as an attempt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in a new light, the latter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to criticize the Japanese scholars' perception of their history as conventionally accepted in the Japanese history academia. I argue in this paper that the themes of each book, despite their seeming irrelevance, are in fact deeply related to each other. I argue so because the popular view of Korean scholars of Korean history, namely the 'internal development theory' is very similar to the common perception of Japanese history by Japanese scholars, the view of 'Japanese Feudalism.' This is because their approaches to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or Japanese history are both model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Western historical development. Drawing attention to this fact, I point out in this paper that, in my two books, I have tried to find a new way of understanding East Asian history, with which the two dominating views of Korean history and Japanese history may be replaced in a new context.

Keywords | East Asian history, internal development theory, peasant society theory, historical conflict